

■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첫 주말

교통사고·작품 작동오류로 '얼룩'

어번폴리 들이받는 사고 잇따라 발생 전시작 10여점 작동 멈춰 '반쪽 관람'

제4회광주디자인비엔날레(10월 23일까지) 특별프로젝트로 광주 도심 곳곳에 설치한 건축조형물 어번폴리(Urban Folly)를 들이받는 교통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도심 교통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무작정 어번폴리를 설치하다 보니, 조형물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운전자들이 사고를 내고 있는 것이다.

특히 중공(1일) 나홀만에 사고가 잦은 구간의 어번폴리 일부가 떨어져 나갔지만, 이를 전시·관리하고 있는 광주비엔날레 재단(이하 재단)은 사배 과과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또 광주비엔날레 전시관에 설치된 영상 작품 10여 점이 작동을 멈추는 등 재단의 전시 운영도 엉망이다.

▲상처 입은 건축가들의 작품=지난 3일 밤 10시 광주시 동구 황금로 사거리(골박스 사거리) 바다에 설치된 어번폴리 작품 위로 승용차 한 대가 갑자기 멈춰섰다.

야구장의 투수 마운드(원형뿔)처럼 바다에 설치된 이 어번폴리는 가장 높은 꼭지점이 지면보다 20cm 가량 높아, 차량 바다에 꼭지점에 걸린 것이다.

이처럼 차량 하부가 어번폴리에 걸리는 사고가 셀 수 없이 발생해 이미 수십 곳이

떨어져 나간 상태다.

또 4일 새벽에도 어번폴리 구 광주시청사거리 구간에서 2차례 접촉사고가 났다. 사거리 한복판에 들어선 집 형태의 어번폴리를 보호하기 위해 4개의 쇠봉을 설치했는데, 이를 발견하지 못한 차량 2대가 잇따라 접촉사고를 낸 것이다.

인근 상인 A씨는 "기준에도 통행량이 많아 항상 차량이 엉켜있곤 했는데, 어번폴리가 도로를 막아 이제는 밤마다 차들로 난리가 난다"면서 "길게는 100m 가량 차량이 정차되고, 운전이 서툰 운전자들은 사고를 내기도 한다"고 말했다.

어번폴리의 전반적인 관리도 허술하다.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전시 기간이기에 찾는 사람이 많지만, 작품을 설명해 줄 도슨트와 안내문은 전혀 없다. 다만 일부 구간에서 자원봉사자들이 유인물만 나눠주고 있는 실정이다.

▲개막 첫날부터 작품 '먹통'="개막 첫 날 이렇게 많은 작품이 작동하지 않아야 되는 건가요?" 이번 광주디자인비엔날레는 유독 영상 작품과 관람객이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작품이 많다. 하지만 충분한 준비 과정없이 전시장을 오픈하다 보니, 처음부터 작품이 안되거나 멈춰버린 설치작품과 영상작품

이 속출해 '반쪽 관람'에 그치고 있다.

개막 첫날인 1일 안은미의 '무지개관상' 모니터가 작동을 멈췄고, '시선추적소프트웨어와 인터페이스'는 아예 작동이 되지 않아 다른 프로그램으로 교체했다.

또 관람객들이 직접 머리에 쓰고 소프트웨어를 사용해보는 체험형 전시인 '뇌-컴퓨터 인터페이스'도 먹통이었다. '제6 양식'의 모니터 2대와 '잠망경과 정자'의 모니터 1대도 불이 꺼진 채 방치돼 있었고, 음악을 들어야 하는 '테라노바 남극교향곡'의 이어폰도 고장이었다.

이 밖에 '통계의 즐거움'의 컴퓨터 4대 중 3대도 멈춰있었고, '광주 어린이 커뮤니티' 아이의 노래'도 고장나 관계자들이 수리하고 있었다.

또 제2·3전시실 안쪽에는 도슨트들이 전혀 배치되지 않아 작품 설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날 전시장을 찾은 광주지역 한 고교 이모 교사는 "참신하고 수준 높은 작품은 많은데 설명이 부족하고, 고장도 잦아 제대로 즐길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재단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직원들의 불친절에 항의하며 전시장 앞에서 입장권을 직접 찢어버렸다" "황금로 사거리 어번폴리에 걸려 넘어졌다" "직원들의 전화 안내가 불친절하다"는 등의 비난글이 잇따르고 있다.

재단 관계자는 "문제가 된 어번폴리 구간은 음주운전이 많아 사고가 나는 것"이라면서 "전시장의 고장 난 작품도 이미 교체하거나 고치고 있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다"고 말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4일 오후 광주시 동구 황금로사거리 바다에 설치된 어번폴리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자전거 운전자가 넘어지지 않으려고 인간힘을 쓰고 있다. 이 어번폴리 구간에서는 교통사고도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장 보드리야르 (2000년)

프랑스와즈 사강 (1984)

'작가의 손'이 건네는 예술 이야기

프랑스문화원 체험행사 9일까지 영상 복합문화관

담배를 쥐고 있는 프랑스와즈 사강의 손, 주름이 자글한 장 보드리야르의 만년필을 쥔 손...

사람의 '손'은 많은 이야기를 한다. 예술가들의 손은 건네는 이야기는 더 다채롭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과 조선대 산학협력단이 진행하는 '프랑스문화원 체험프로그램'에서는 프랑스 예술가들의 프로필 사진과 작업하는 손을 담아낸 사진을 소개하는 '작가의 손' 전시를 비롯, 다양한 행사를 만날 수 있다.

9일까지 광주영상복합문화관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전시, 영화감상, 체험행사 등으로 구성돼 있다.

'작가의 손' 전시에서는 프랑스 사진작가 아니 아슐린이 프랑스어권 작가들의 얼굴과 손 사진을 찍은 작품 20여점이 선보인다. 소설가 이스마엘 카데레, 페트릭 모디야노 등이 주인공이다.

프랑스 국립유적보관소가 소장하고 있는 프랑스 유적 사진을 만날 수 있는 '100개의 유산, 100명의 작가' 20여점도 만날 수 있다.

영화도 상영된다. 9일에는 '돈주앙'과 '노트르담 드 파리'가, 8일에는 '프린스 앤 프린세스', '키리쿠 키리쿠'를 무료로 만날 수 있으며 '부르보 박물관', '도시의 탄생, 파리' 등 다양한 다큐멘터리도 상영한다.

그밖에 키즈 아틀 클레식, 프랑스 상징물을 이용한 화분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준비돼 있다. 이용료는 모두 무료다.

한편 '작가의 손' 전시는 15일부터 30일까지는 광주프랑스문화원으로 옮겨 진행된다.

문의 062-230-6577
/김미연기자 mekim@kwangju.co.kr

'프라하의 추억'이 9월을 반긴다

시립교향악단 수시연주회, 8일 문예회관 대극장

여름이 물러가고 9월이 시작되면서 지역 공연계가 서서히 기지개를 켜고 있다.

광주시립교향악단은 '프라하의 추억'을 주제로 수시연주회를 갖는다. 8일 오후 8시 광주문예회관 대극장.

체코 출신 작곡가인 드보르작의 곡들로 꾸민 이번 연주회의 객원지휘자는 지중배씨다. 독일만하임 국립음대에서 현대음악 앙상블 음악감독으로 활동중인 지씨는 올해 프랑스 브장송 국제 지휘콩쿠르 본선에 진출했다. 또 2011, 2012 시즌에 부천시립, 라이프치히 중독립 방송교향악단 객원 지휘자로도 활동중이다.

지씨가 지휘봉을 잡는 작품은 드보르작의 '카니발 서곡 작품 92'와 '교향곡 8번 사장조 작품 88'이다.



지중배 임상우

이번 공연에서는 현재 서울시향 부수석으로 활동중인 클라리넷 연주자 임상우씨가 모차르트의 '클라리넷협주곡 가장조 작품 622'를 협연한다.

한편 이번 연주회에서는 오디션을 통해 시향에 합류한 악장 이종만씨 등 신입단원 8명이 첫선을 보인다. 티켓가격 3만원~1만원. 문의 062-613-8364.
/김미연기자 mekim@kwangju.co.kr

'또 한 번 스무살이...'

김숙희 첫 시집 출간

아마추어 사진작가와 시낭송가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김숙희씨가 첫 시집 '또 한 번 스무살이 되고 싶은 밤'(서영 퍼블)을 펴냈다. 시집은 100여 편의 시와 함께 그동안 김씨가 찍은 사진들을 곁들여 단아하게 구성했다.

사랑과 그리움으로 살았던 청춘의 회상을 담은 표제작 '또 한 번 스무살이 되고 싶은 밤'을 비롯해 사물에 대한 섬세한 관찰과 깊이 있는 내면화가 돋보이는 작품을 '마음이 앉아 있던 그 어디쯤' '발걸음 머물렀던 그 어디쯤' '인연, 그 행복한 만남' 등 4개의 장으로 나뉘어 있다.

서울 출생인 김씨는 동선대 산업디자인학과를 졸업하고 2007년 '현대문예' 신인문학상으로 등단했으며 제1회 농촌경관사진콘테스트 최우수상, 제4회 전국 가사 시조낭송경연대회 장려상, 전국환경사진촬영대회 은상 등을 수상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PREMIUM BUFFET MELUSTIA 아이엘리시아 DIN N AVER 아이엘리시아 검색

특허청 서비스표등록 제41-0187289

돌잔치, 피로연, 세미나 각종 모임 및 행사 (500석 완비)

소모임(룸) : 9인석, 12인석, 24인석, 32인석
대모임(룸) : 52인석, 92인석, 150인석

고품격 메뉴, 건강한 맛, 품격있는 서비스

아이부터 어른까지 3대가 만족하는 즉석 프리미엄 뷔페 아이엘리시아! 고객님의 소중한 추억과 맛있는 행복을 약속합니다.

평 일				토 · 일 · 공휴일			
이용시간	성 (중학생 이상)	인 (초등학교생)	미취학아동 (5세~7세)	이용시간	성 (중학생 이상)	인 (초등학교생)	미취학아동 (5세~7세)
11:30~22:00	25,000원	12,000원	8,000원	11:30~22:00	29,000원	18,000원	12,000원

★ 금요일 DINNER는 주말요금으로 적용됩니다. ★ 어린이 요금은 의료보험증 등을 지참하시어 할인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약문의. **062) 671-1199**

유·스퀘어 문화관 2F CGV 옆 터미널 2층

여성가족부 인정

2011년도 "가정폭력상담원" 교육

〈광주광역시 북구청 지정 교육기관 : 08-1〉

■ 교육일시(총100시간)
▶ 2011년 9월 20일(화) ~ 11월 24일(목) 매주 화, 목 오후 6:00~

■ 접수기간 : 2011년 9월 9일(금)까지

■ 모집대상 (각 항에서 1개만 해당되면 가능)
①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②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자
③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단체 임직원 또는 공무원으로 가정폭력방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자
④ 이주 노동자 및 외국인 관련 단체 및 시설(외국인보호)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⑤ 장애인 관련 단체 및 시설(장애인보호)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수 강 료 : 22만원
※ 계좌 : 063-107-581656(광주은행) 예금주 : 광신교육원(가폭)
※ 수강료를 환불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규정(법 제15조, 규칙 제16조)에 따라 환불조치하며, 2회 이상 수강이후 취소할 경우 환불이 불가합니다.
※ 교육생이 30명이 이상 모집되어야 개강이 가능하며, 미실시시 전액 환불해 드립니다.

■ 교육특전 및 혜택
① 교육훈련 교과목 중 이수하여야 할 이수별 총 시간의 90% 이상을 수료한 자에 대해서는 수료증과 가정폭력상담원 자격증 카드를 발급합니다.(출석시간 90% 미달자는 제적처리함.)
② 본원의 가정폭력상담원 과정자 중 성폭력상담원 자격 취득 희망시 별도비용과 추가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제출서류
① 신청서(소정양식)
②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③ 신분증 사본
④ 사진 2매
⑤ 경력증명서(해당자)
⑥ 자격증 사본(해당자)

광신대학교 한국가족치유상담교육원